

'24~'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

-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동일하게 10월중 접종 시작 예정
-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접종
- 기존 '23-'24절기 접종 등은 6월 30일자로 종료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신규 백신 균주 도입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현장 적용할 '24~'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(6.10.)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(6.11.)를 거쳐 발표하였다.

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65세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로,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가을-겨울철에 고위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정례화*하는 추세이다.

* 미국, 영국,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 주요국에서 연 1회 이상 접종 시행 중

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춰 '24~'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(이하 '24~'25절기 접종)을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것을 적극 권고 중이며, 가급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10월 중 시작할 예정*이다.

* 백신 허가 및 도입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세부 계획은 9월중 발표 예정

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* 입원·입소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,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 예정인 백신으로 접종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접종 가능하다.

*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건강증진시설, 노숙인 생활시설, 장애인 생활시설

'24~'25절기 접종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(WHO) 등*이 새롭게 결정한 신규 백신(JN.1 변이 등 대응)을 활용할 예정이며, 신규 백신은 미국, 유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백신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.

* 신규 백신은 기존 백신(XBB.1.5)보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(세계보건기구 4.26., 유럽 의약품청 4.30., 미 식품의약국 6.13.)

아울러, 코로나19 최소 접종 간격(3개월) 및 신규 백신 도입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, 기존 '23~'24절기 접종과 '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접종은 6월 30일자로 종료*한다.

* 기존 접종에 활용하던 XBB.1.5 백신은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경우, 임상시험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할 예정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예방접종”이라고 밝히며, “올가을 신규 백신 접종을 통해 두터운 면역이 형성되도록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와 함께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동우 (043-719-8360)
		담당자	사무관	권승현 (043-719-8371)
담당 부서 <협조>	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	책임자	과 장	박준구 (043-719-6810)
		담당자	사무관	손장우 (043-719-6819)

